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⑤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기법정교 보존완벽한 비로사 벽화

중국 허북(河北)성의 성도인 석가장(石家庄)에는 오래된 불교사원인 비로사(毘盧寺)가 있다. 비로사는 예로부터 많은 고대 벽화를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며, 당(唐)나라 때 건설돼 12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이다. 이곳에 보존된 벽화들은 대부분 14세기 초에 조성된 작품들로서 중국의 고대벽화 중 귀중한 작품으로 인정된다.

200㎡의 면적을 차지하는 비로사의 벽화는 내용도 풍부하고 벽화기법도 정교하고 뛰어나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벽화의 하나로 평가된다.

비로사에 가기 위해 호텔에서 싸준 도시락으로 아침밥을 준비하고 이른 새벽에 호텔을 출발해, 고속도로를 3시간여 달린 끝에 아침 9시를 넘겨 비로사에 도착했다. 비로사에 들어서기 위해 일주문을 통과하는데 이곳도 역시 조박초 회장의 휘호로 비로사라는 편액이 만들어져 있다.

2004년 5월 21일 세상을 떠난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은 20년동안 중국불교협회 회장에 재임하면서 중국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문화혁명이후 사실상 사장(死藏)되고 금지되었던 불교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 회장은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조 회장은 “불제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며 추도식을 일체 금했고, 자신의 시신을 해부 연구용으로 병원에 기증하는 등 대승보살로서의 자비행을 보여 중국 불자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일주문을 지나서 석가전(釋迦殿)이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비로사에는 스님들이 상주하지 않고, 관리인들이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분주하게 여럿이 열쇠 꾸러미를 가져와 전각의 문을 열었다.

비로사와 흥룡사, 무강 연화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번 일정에는 한국 고판화학회와 깊은 교류 관계가 있는 보승년 북경 중앙미술학원 명예교수가 팔십이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동침해 열심히 현장 답사를 지도했다. 지금까지 보 교수는 중국 민간연화 학자로서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번 학술답사를 통해 중국 민간미술사학자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설명하는 해박한 해설은 일행을 중국 고미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 있게 했다.

석가전에는 수미산을 배경으로 석가모니불을 주존불로 모시고 있으며, 토불(土佛)로 명나라 때 조성된 작품이다. 협시불로는 가섭과 아난존자가 모셔져 있으며 근래에 조성된 작품이라고 한다. 석가전 뒷면에는 토불로 관음, 문수, 보현보살상이 보타락가산을 배경으로 조성돼 있으며, 석가전 전체 벽면에는 세 가지 주제로 벽화가 그려져 있고, 벽화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건물에 기둥을 없앤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생에서 열반까지 석씨원류의 이야기가 표현돼 있으며, 두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本生譚, 불타의 전생 이야기)이 그려져 있다. 세 번째는 불교와 중국 전통의 유교, 도교, 민간신앙이 서로 접목된 형식을 취했다. 특히 이 벽화는 인물의 복식이나 건축물은 명나라 때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양식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표현한 석씨원류 부분은 태자의 모습이 인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중국화 된 모습 이어서, 명나라 때 제작된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源流應化事蹟, 부처님일대기와 조사들의 이야기 중 한 장면을 1도 1문씩 삽화로 만든 책) 삽화본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같은 석가전의 부처님 일대기 벽화를 통해 고판본의 삽화와 불화는 상호 연관돼 왔다는 점도 확인됐다. 실제 답사를 통해 불화에서 없어진 조본을 판화 삽화본에서 찾을 수 있었고, 반대로 판화에서 없어진 부분을 불화에서 찾을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둔황(敦煌)의 막고굴(莫高窟) 벽화와 북경 법사사 벽화, 산서성 영락궁 벽화와 어깨를 겨루는 비로사의 벽화는 중국 벽화예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로사 벽화는 지방의 민간 화가들에 의해 조성돼, 중국의 고대사회의 생활과 풍속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비로사 벽화의 아름다움은 비로전 벽화에서 더욱 알차게 나타나 있다. 비로전은 지상으로부터 1m 높이의 계단 위에 세워져 있었고 용마루 양끝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으며, 처마는 날아갈듯 하다.

비로전 벽화에 대해 박도화 동국대 교수는 “벽화는 상중하 세열로 나눠 각각 극락, 인간, 지옥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한과 보살, 충신을 비롯한 508명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이 비로전의 벽화는 수륙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되는 수륙화”라며 “내용은 중국의 불교, 유교, 도교, 민간 제신을 비롯한 충신, 열녀 등 508명의 인물 하나하나에 이야기와 전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로전의 벽화 중 북쪽은 불교가 중심이고 동쪽과 서쪽은 도교의 인물을, 남쪽은 일반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도교인물로는 옥황대제, 환문상제, 오방오제, 관우상 등 다양한 주제로 벽화가 묘사됐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관우상은 삼국지 등장 인물과 함께 정색을 위주로 역분점금(歷分點金, 돌가루를 액체로 만들어 조금씩 그림위에 선을 만들고

508명 인물그린 비로전 수륙화
섬세한 필치·색감 조화 압권

석채 안료가 긴 세월 유지
14세기 초 생활사 연구에도 도움

그 위에 금박을 임하는 것)기법으로 조성됐다.

주황색과 녹색 위주의 색감으로 조성된 벽화는 삼단으로 구성된 벽화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중간 중간에 문게구름이 피어나듯이 묘사했다. 인물들 모두 섬세한 필치로 표현됐으며, 무엇보다 하단 신상들의 사실적 표현은 가히 압권이다. 이는 한국 감로탱의 표현과 자못 흡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비로전의 벽화는 중국 고대 벽화의 전통기법을 이어받아 선의 흐름이 시원하고 색채가 산뜻하며 인물형상이 생생하다. 사용한 안료도 석채 위주로 조성되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아름다운 색감을 유지하고 있다.

아름다운 비로사 벽화를 보고 나니 문화대혁명 기간에 많은 문화재와 사찰이 파괴돼, 중국불자들의 신심을 이끌어낼 만한 성지가 별로 없다는 선입관은 자연스레 깨졌다. 도리어 한국불교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국 사찰 순례를 부지런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석가장의 최고의 대찰인 룡흥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로사 비로전 벽화에 그려진 인로왕보살. 508명의 인물이 섬세한 필치로 표현된 도상들이 가히 압권이다.



중국 고승들이 그려진 비로사 비로전 벽화



한국고판화학회 회원들이 비로전 벽화를 현장 답사하고 있다.

석가전 벽면에서는 석씨원류와
본생담·유불선 그림 만날 수 있어

부처님 일대기 벽화와
고판화 삽화 상호 관계 밀접



유불선 승합을 보여주는 비로전 벽화의 관우상. 역분점금(歷分點金)이라는 독특한 표현기법이 사용됐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박도화·정찬민

음마니반에 흥 열꽃 울장대 & 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오!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드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팔만대장경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울장대, 또는 법륜대라고도 하는 이 법구는 한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 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호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이 울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 기수원현, 가정의 거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울장대는 1.5v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열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왕래재수가 원활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찰에 신도 개인인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울장대 사이즈 | 높이 17×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찰스님20%할인)
제조원 | 티벳 / 수입처 | 풍다원

입금 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전화 | 010-4233-7099

세계 최초 출현 금강저 108염주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민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하였는데,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 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율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높여 주며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 업장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백팔금강저 가격 240,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전화 : 010-4233-7099